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Online Series

2022. 04. 28. | CO 22-11

홍민 (북한연구실장)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은 규모면에서 역대급, 내용면에서 군사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을 열병식 무대로 삼은 배경은 항일무장투쟁 전통과 현대적 국방력 강화를 연계하는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대급 무기 동원을 통해 김 위원장의 최대 성과인 국방력을 과시하여 4월 행사들의 피날레를 장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연설의 요점은 최대 속도로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미, 대남 직접 메시지 대신 조성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으로 언급했다. 미국으로부터 명분을 찾는 특수한 상황 논리에서 안보 차원의 일반론으로 의도적으로 변화를 취했다. 주목할 부분은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시' '둘째 사망' 결행 의지를 밝힌 부분이다. '근본이익'이 침탈 받았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의 핵정책과 선제타격 가능성,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국의 전력증강에 대응하는 한편 핵무기 고도화에 따라 교리를 공세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핵무기의 사용 문턱을 낮춘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대미 억제력을 수사적으로 보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지난 4월 26일 오후 8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녹화방송 했다. 2시간 23분 정도로 편집된 이 영상의 실제 행사는 전날인 25일 오후 9시 식전행사, 10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돼 자정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번 열병식은 2020년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네 번째 야간 열병식으로 다채로운 시각적 효과와 무대 연출, 군복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의 동반 등장, 김 위원장의 연설, 대규모 열병 종대 및 무기 등장 순으로 진행됐다. 약 2만여 명이 참여, 2020년 당창건 75주년 열병식(1만 5천 명), 2021년 제8차 당대회 열병식(1만 명) 등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 규모의 열병식 행사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각별하게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크게 네 가지 메시지로 구성됐다. (1) 혁명적 무장력의 전통, (2) 강력한 자위력을 위한 정치사상적 강군화, (3) 핵무력의 최대 속도로의 강화 발전, (4) 핵무기 사명(사용 교리) 등이다. 혁명 무장력의 역사와 향후 국방력 강화, 특히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밝히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제8차 당대회가 핵무기 고도화의 공개적 선언, 같은 해 10월 국방발전전략회의가 핵무기 고도화의 구체적 계획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무대였다면, 이번 연설은 ‘최대 속도로의 핵무기 고도화’ 및 ‘실전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미, 대남 직접적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조성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세계적인 군사력 및 전쟁 양상의 변화 등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대북적대시정책과 같은 특수한 상황 논리를 언급하는 대신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에 맞춘 열병식 개최 배경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 열병식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¹⁾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10주년이 아닌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을 열병식 무대로 삼은 배경은 무엇일까. 하나는 4월 굵직한 행사들에 대한 안배, 다른 하나는 대내외적 메시지 효과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배의 차원에서 보면, 4월 중 김정은 집권 10년, 김일성 탄생 11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순차적으로 연계한 드라마틱한 분위기 고취다. 앞의 두 행사는 행사 주간 형식으로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형식을 취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을 피날레로 역대급 무기 동원을 통해 김 위원장의 최대 성과인 국방력을 과시하는 순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항일무장투쟁 전통과 현대적 국방력 강화를 연계하는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상징적 효과 역시 노린 것으로 보인다.

1)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총 11차례의 열병식이 진행됐고 군 관련 기념일에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201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군일 열병식 포함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김정은 위원장 참석 아래 약식의 예식 열병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규모 열병식과는 구별된다.

<표 1> 김정은 집권 이후 역대 열병식 개최 동향

연도 기념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태양절 (4.15.)	○					○						2
건군절 (2.8.)							○					1
혁명군 (4.25.)		예식									○	1
전승일 (7.27.)		○										1
공화국 (9.9.)		○					○			○		3
당창건 (10.10.)				○					○			2
당대회										○ (1.14.)		1
합계	1	2		1		1	2		1	2	1	11

* ○ 표시는 야간 열병식

다른 하나는 대내외 메시지 효과다. 대내적으로 인구학적 세대 변화(“혁명세대의 교체”)에 맞는 대국민 프로파간다와 결속의 효과다. 이번 열병식의 서사 구조는 항일혁명전통의 환기,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정당성 부각에 신경을 쓴 측면이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혁명의 세대는 계속 바뀌고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안팎으로 세대 변화와 정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정치사상강군화’를 전략적 1대 과업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코로나와 제재에 지친 주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조성된 정세에 대응해 핵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장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 김정은식 이미지 정치로서 열병식

이번 열병식 포함 최근 네 차례에 걸친 야간 열병식의 특징은 ‘화려한 불거리’에 대한 집중이다. 2020년 당창건 75주년 열병식부터 야간 진행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전환을 한 이후, 화려한 볼거리 중심으로 열병식 아이টে을 선보이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빠른 음악과 다양한 조명을 활용한 무대연출로 구성된 전반부 식전 행사, 경쾌한 열병 종대 행진,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한 에어쇼, 빠른 편집과 다양한 앵글로 포착된 무기 등 엄숙한 열병식보다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국방력 이미지를 감각적 촬영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열병식은 대내외에 정책 메시지를 발신하는 종합적인 퍼포먼스와 이미지 정치가 집약된 무대로 변화했다. 김정은식 이미지 정치의 핵심은 ‘입체적 전시(경관화)’, 스피드, 메시지다.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앵글을 통한 도시공간의 무대화, 빠른 편집을 통한 율동감 부여, 시각적·언어적 메시지 구현 등이다. 그런 측면에서 열병식은 이미지 정치의 종합적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김정은 시대 열병식 행사 노동신문 게재 사진 수

(단위: 개)

기념일	2022. 4.25.	2021. 9.9.	2021. 1.14.	2020. 10.10.	2018. 9.9.	2018. 2.8.	2017. 4.15.	2015. 10.10.	2013. 9.9.	2013. 7.27.	2012. 4.15.
사진 전체	152	73	100	127	94	100	78	38	12	18	42
무기 사진	60	0	42	62	14	41	25	8	2	4	11

이번 행사를 보도한 4월 26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행사 사진 수는 152개로 김정은 집권 이후 역대 열병식 중 가장 많은 수다. 이 중에서 무기 사진은 60개로 역대 최다였던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때와 비슷하다. 2017년부터 열병식 보도사진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등장 무기의 다종화, 전략적 과시 욕구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이번 열병식 노동신문 보도사진에서 각 등장 무기별로 평균 4장, 화성-8형(글라이더형 극초음속미사일)은 6장, 화성-17형(ICBM)은 13장 등 신형무기나 핵심 전략무기일수록 사진 수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연출에서 나타난 변화다. 우선 집권 이후 11차례의 열병식 참석 중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등장했다. 2012~2018년은 검은 인민복, 2020~2021년은 회색 양복이었다. 군 관련 유일한 열병식이었던 2018년 2월 조선인민군 창군일 열병식에도 검은 인민복과 코트를 입고 나온 바 있다.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흰색 원수복 초상화나 사진을 의식한 연출로 볼 수 있고 핵무장력의 최고 지휘자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의도로도

읽을 수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연설문을 읽는 속도가 빨라진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체중 감량으로 나타난 효과로 볼 수 있다.

리설주와 동행한 부분도 이례적이다. 역대 11차례 열병식 중 리설주와 동반 등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2월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도 함께 의장대의 카펫 사열을 받은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군 기념일 열병식이란 공통점이 있다. 당과 국가 기념일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군 관련 기념일 열병식에는 참석한 것이다. 여러 추론이 가능하지만, 항일무장투쟁이나 군 창설에서 선대 김정숙의 역할이나 상징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는 군사적 호전성과 비정상성을 상쇄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핵개발 명분으로 정세 불확실성 언급, 북한식 ‘힘을 통한 평화론’ 주장

김정은 위원장 연설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혁명적 무장력의 전통, (2) 정치사상적 강군화, (3) 최대 속도의 핵무력 강화 발전, (4) 제2의 핵무기 사명(사용 교리) 등이다. 연설 자체가 군사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 주목할 부분은 ‘정세’에 관한 언급이다.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 “격변하는 정치군사정세”, “세계군사력 발전 추세”, “변화하는 전쟁 양상” 등이다. 이 ‘정세’는 미중 전략경쟁, 미러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적 군비경쟁과 무기체계의 변화, 현대전 양상 변화 등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결론은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라는 것이다.

메시지 핵심은 미국과 동북아의 핵공격 능력 신장에 맞서 억제력, 선제 및 보복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최대의 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쟁 억제를 위해 핵무기 고도화를 한다는 것이다. 북한식 ‘핵무기를 통한 평화론’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지속되어 왔지만,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핵개발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나 미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미국으로부터 명분을 찾는 특수한 상황 논리에서 안보 차원의 일반론으로 의도적으로 변화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 고도화 프로세스와 북미협상을 분리하는 이중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응한 수단을 넘어 자위권 차원에서 일반 국가가 행하는

국가방위력 향상을 위한 행동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중기준’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 미국과 한국이 주적이 아니란 주장 등은 핵무기 개발을 한미의 대북적대시정책 대응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행하는 자위권 차원의 행위로 일반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다. 이것은 핵무기 개발을 북미협상에서 분리하기 위한 시도, 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의 차단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은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선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개발의 ‘불가역성’ 역시 강조했다. 한미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핵무기 개발의 ‘불가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란 것이다. 무기 개발 완수를 일차적 목표로 두고 그 과정에서 북미협상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적대적 행위나 이중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일정하게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 트랙과 외교적 협상 트랙의 분리로 볼 수 있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은 이 분리전략을 조정하는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본이익 침탈’ 시 두 번째 핵무력 사명 결행, 핵교리 변화 시사

이번 김 위원장 연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핵교리(nuclear doctrine) 변화를 시사한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핵무력 기본사명”이 전쟁 억제에 있지만,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 전쟁방지에만 속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상황은 어떤 세력이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할 때이며, 이 때 “둘째 사명”을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이익’의 침탈 상황과 ‘두 번째 사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전쟁을 방지하는 억제용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익’이 침탈받았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2013년 4월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령’을 통해 핵교리를 구체화한 바 있다. 이 법령에는 “핵무기는 적대적 핵보유국의 침략 및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적대국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침략 및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및 위협하지 않는다”고 핵무기 사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선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교리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북한의 핵교리는 표면적으로 ‘억제’와 ‘보복’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

적으로 (1)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용도, (2) 공격을 당할 때 격퇴, 보복 타격용이다. 이번 연설을 통해 (3) 이익을 침탈당하는 특정 상황에서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물론 명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북한이 규정한 상대의 ‘공격’,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는 적의 ‘공격’ 상황이 핵무기 공격 상황인지 비핵 공격도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기존 교리와 이번 연설을 통해 추론하면, 북한은 비핵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이익 침탈’이라는 특정 상황이나 상대 행동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공세적 핵교리, 핵무기 다종화의 자신감과 한미 전력에 대한 조바심 교차

연설 내용만 보면 북한의 핵교리가 공세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배경을 추론해 보면, 미국의 핵정책과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국의 전력 증강 등에 대응하여 공세적인 교리로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요약본 형태로 공개된 바이든 정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미국은 동맹국 및 협력국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적대국의 핵공격에만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핵 ‘단일 목적’ 사용을 지지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비핵 위협 또는 재래식 전쟁에서 핵전쟁으로의 비화 등 모든 상황에 대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전쟁이 아니라도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저장도 핵탄두에 의한 선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 NPR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 상황의 민감도는 과거와 다른 측면이 있다. 미중 대치 전선 첨예화,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치열한 동북아 핵군비경쟁,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 움직임, 한미의 북핵 공조 등 미국의 핵교리와 정세 사이의 민감도가 커졌다. 한국의 전력 증강도 북한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최근 SLBM 성공, 고체형 우주발사체 실험 성공,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초소형 군정찰위성 개발, 한국형 대공미사일 체계의 고도화 등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의 효용성과 핵보유국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이다.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미국의 압도적인 핵능력, NPR의 모호성과 저장도 핵무기를 통한 정밀선제타격 능력, 한국의 전략무기 증강 등으로 북한의 대미 억제력 확보에 보다 많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의 ‘근본이익 침탈’이라는 모호한 공세성은 ‘극단적 환경’이라는

미국의 NPR을 모방한 수사적 대응이자 다종화된 핵무기 확보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 않고 다종화된 전술핵무기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형화된 핵탄두 탑재 능력은 아직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 위원장 연설에서 나타난 공세적 핵교리로의 변화는 핵무기 다종화에 따른 자신감의 측면도 있지만, 실제 능력과 현실의 괴리, 미국과 한국의 전력 증강에 대한 조바심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적 차원의 대응으로 읽을 수도 있다.

다종화된 전략 전술무기 동원 통한 억제력 및 선제 보복타격 능력 과시

이번 열병식에서 식별된 등장 무기는 총 26종 170대로 확인된다. 무기 종류와 규모만 단순 비교하면 지난 11차례 열병식 중 네 번째에 해당한다. 그러나 등장 무기의 다양성, 전략적 가치와 위력, 전체 종대 규모 등으로 보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다. 72개 종대, 2만여 명이 참여하여 최근 5년 내 열병식 중 가장 큰 규모다.

<표 3> 김정은 시대 열병식 식별 무기 종류와 규모

일 자	2022. 4.25.	2021. 9.9.	2021. 1.14.	2020. 10.10.	2018. 9.9.	2018. 2.8.	2017. 4.15.	2015. 10.10.	2013. 9.9.	2013. 7.27.	2012. 4.15.
식 별 무 기	26종 170대	0	20종 172대	24종 225대	12종 125대	17종 136대	22종 169대	31종 291대	2종 20대	38종 285대	37종 560대
종 대	72		50	61	54	36	85				

※ 위 숫자는 열병식 영상을 토대로 식별·추정된 것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위 무기 종류와 대수에는 항공기 미포함.

열병식 등장 무기는 2019년 이후 개발된 신종 전략·전술 무기가 망라됐다. 전략무기급 미사일이 갖는 실제적 위상과 향후 행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성-17형(ICBM), 신형 SLBM, 화성-8형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KN-23, 24, 25 등이다. KN-23, 24, 25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해결해야 할 기술적 숙제가 아직 많다. 화성-17형은 화성-15형

조작설에 재진입 및 다탄두화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열병식을 위해 추가 3기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 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롭게 등장한 신형 SLBM은 잠수함 발사 실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한국의 SLBM 개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향후 가까운 시점에 실험 가능성이 높다. 화성-8형 역시 지난해 9월 28일 한 차례 시험발사를 했지만,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KN-23, 24, 25 역시 양산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소형화된 핵탄두 탑재 능력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림 1> 김정은 집권기간(2012~2022) 미사일 발사



결국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의 화려한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향후 많은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하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 패턴과 사이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3~2017년 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 일련의 압축적인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설정됐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 단·중거리 미사일 정확도 향상, 신형 중거리미사일의 전력화, ICBM급 신형 미사일 기술 완성이다. 이 기간 단거리부터 준중거리, 중거리로 이어지는 기존 보유 미사일의 역량 확인, ICBM급 엔진 개발, 신형급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부터 시작된 2차 핵무기 고도화 사이클은 향후 전력화할 단거리 전술미사일의 개발, SLBM과 ICBM 능력의 확증,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실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단거리급의 경우 고체연료형, 이동형(Tel), 하강-상승(pull-up) 기동형의 유도무기체계 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가 KN-23, 24, 25다. SLBM과 ICBM은 사거리 확장, 재진입기술 확보, 다탄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2차 핵무기 고도화 모두 단거리급 무기로 시작, 기본 모델 확보 후 진화적 개량 및 적용, 기술적 문제 돌파 후 양산 및 실전화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진화적 개량 및 적용 방식이란 점에서 기술적 문제에 봉착 시 일정한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지난 10년 간 보여준 무기의 다중화와 기술적 향상 속도는 예사롭지 않다. 완성도 높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여러 단계의 기술적 고도화를 거쳐야 한다. 일정 단계에서 개발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일정하게 기술적 문제 해결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 자기규정과 실제 대미 억제력 확보 사이의 간극

이번 열병식 등장 무기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민감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정밀한 선제타격 능력, 고도의 정찰능력, 항모 전단의 포위와 가공할 화력, 압도적인 제공권 장악이다. 북한의 전략·전술 무기 개발은 이에 대한 대응능력, 억제력 차원에서 구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CBM 능력 확보의 어려움, ICBM 실제 사용의 어려움, 전술핵무기 다중화를 위한 핵무기 소형화의 기술적 어려움,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국의 상대적 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대미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향후 핵무기 고도화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전술핵무기 다중화, 사거리별 타격 능력 향상에 따라 공세적인 교리로의 전환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KINU 2022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